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작성일 : 2010. 5. 2 (월) 새벽 4시 30분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SS교육국장.)

*엘리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어라’ 말씀하셔서 급히 적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탄에 대해 정확히 알아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행악자 사탄은

너희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노력한다.

너희가 처음에 사탄에게 틈을 허락하면

그들은 너희의 마음에 붙어 기생하며,

너희가 처음 사탄에게 틈을 보여준

그 죄를 반복하여 짓게 만들고

죄를 넘치게 하여

결국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마음 안에 거한다.

사탄이 주인 된 마음에는 내가 거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은 결국 사탄의 것이 되었으니 구원 또한 어렵다.

그러하니 너희의 마음 가운데 붙어 기생하며

반복되는 죄를 짓게 하는 원수 사탄을 멸하여라.

아직 너희 마음의 주인은 되지 못하였으나

너희 마음에 자신이 주인 될 발판을 만드는

사탄 마귀들을 경계하고 멸하여라.

기도하며 너희들이 반복하여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 사탄을 멸하여라.

사탄이 너희 마음에 주인이 되면,

결국 너희는 인 사탄으로 변질 되어 버리니

자신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

고통이 따르지만 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멸망을 받게 되리니

결심하고, 작정하고

자신의 마음의 틈에 붙어서

너희의 마음인양 속삭이는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라.

약한 부분,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 회개이고,

사탄이 발목 잡고 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벗어버리고 뛰어 넘는 것이 변화이다.

나의 말을 듣고 온전한 자로 거듭나라.

너희의 평생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탄은

너희가 틈이 없다 하더라도 쫓아다닌다.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너희의 틈을 타고

정신 속에 들어가 사상을 바꾸고,

생각을 변질 시키니

사탄을 너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혼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영은 지옥에 가고, 육은 인 사탄이 된다.

그러하니 너희의 마음, 정신, 생각을 지키고

너희의 행실을 살피며

너희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라.

사탄은 너희의 정신과 마음을 두고

우리과 치열하게 싸운다.

너희가 먼저 지지 말아라.

강철 같은 사상과 정신을 무장하고

절대 마음 문 열어주지 아니하며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라.

그들을 뚜렷이 보아라.

늘 너희의 정신과 마음을 살피며

이상한 마음들, 자신의 마음 같지만

옳지 못한 것들을 조심하며 경계하라.

극적인 때다.

너희의 행함이, 너희의 마음이 온전하기를 바란다.

섭리사는 반복적인 한계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고비를 계속적으로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니 사탄에게 저서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다.

섭리사 기도하는 모든 자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자신이 진정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을

뛰어넘기를 진정 바란다.

결국 하늘 편이 승리하다.

너희 또한 하늘 편이 되어 함께 승리하길 바란다.

정신,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면 너희의 것이지만 다시 찾기 힘들다.

사탄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길 원한다.

너희의 선봉에서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주 예수.